

# 83번째 생일 맞는 광주극장 선물 보따리 푼다



개막작 '라스트 씰'



'메멘토'



18일 전야제 무대에서는 'EYM 트리오'.

19일~이달말 기념 영화제... 개막작 '라스트 씰'·감독과의 대화 '아버정전' '메멘토' '시네편' ... 무료영화 '연쇄살인마' 등 16편 상영 18일 전야제 佛 'EYM 트리오' 콘서트... 간판학교 수강생 작품 내걸어

물감 냄새 물씬 풍기는 작업실, 그 안에 자리잡은 이정현의 '꽃잎', 홍경인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최민식의 '범죄와의 전쟁' 등 주옥 같은 영화간판들. 83번째 생일을 맞는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 미술실의 풍경이다. 기자는 최근 6주 동안 진행된 3기 영화간판학교에 참여해 이 극장에서 처음 봤던 영화 '원스'(2006)를 그려왔다. 관객이 직접 손그림 간판을 만드는 영화간판학교는 지난 2015년 시작해 50여 명이 거쳐갔다.

가로 4m·세로 2m 간판에 실린 영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다. 올해 오스카상 4관왕에 빛나는 '셰이프 오브 워터'와 올리버 스톤 감독의 1986년 영화 '플래툰', 개관 83주년 광주극장 영화제에서 상영될 박종훈·최명길 주연 '우묵배미의 사랑'(1990) 등 9편의 영화간판이 9명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다. 20대부터 60대까지 대학생과 드림 연주자, 전 공무원, 시민활동가 등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광주극장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간판학교에 지원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간판 제작에 들어갔다. 참여자들은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53) 화백은 명절도 있고 제작을 도왔다. 작업은 포스터를 쪼갬 뒤 비율에 맞게 밀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화백은 "밀그림을 꼼꼼하게 그리면 인물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예전 간판

쟁이들은 영사기로 포스터를 띄워 그리면서 사실감을 더했다"고 귀띔했다. 밀그림이 완성된 뒤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이어졌다. 검정, 파랑, 빨강, 노랑, 흰색의 페인트만을 가지고 색을 배합해 칠하는 작업이 반복됐다.

영화의 감동은 손그림 간판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플래툰' 주인공의 절규를 표현하며 '순수함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다'는 포스터 문구의 진가를 확인하고 '보이후드'의 여섯 살 소년의 귀여움에 푹 빠지기도 했다.

3년 독일 생활을 마치고 '셰이프 오브 워터'를 그리며 광주극장의 추억을 되살린 진실에(33)씨는 "관객들이 간판을 그리며 영화를 되새기는 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보물과 같은 광주극장이 오래도록 시민 곁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된 간판은 83주년 기념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관객들과 함께 영화관 외벽에 내걸릴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극장은 이달까지 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18일 오후 7시 30분에는 프랑스에서 온 밴드 'EYM 트리오'의 콘서트로 영화제 전야 분위기를 돋운다. 엘리 뒤프르(피아노), 안 페이페(베이스), 마크 미셸(드럼)이 2010년 결성한 이 트리오는 지난 2015년 '생 제르맹 데 제즈 축제'에서 영 밸런스 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개관 83주년 광주극장 영화제(19~31일)를 알릴 3기 영화간판학교 참여자들의 간판 제작과정. '플래툰', '우묵배미의 사랑' 등 9편의 포스터가 실린 손그림 간판은 1년 동안 극장 대표간판으로 내걸린다.

올해의 개막작(19일 오후 7시 30분)은 지난 1월 문을 닫은 부산 대표 예술영화관 극도예술관을 지켜온 사람들을 담은 '라스트 씰'이다. 영화 상영 뒤에는 박배일 감독과 대화 시간이 진행된다.

이어 칼 드레이어의 대표작 '잔 다르크의 수난'(1928), 장 뵝 고다르의 '비브르 사비'(1962), 나루세 미키오의 '방랑기'(1962) 등 고전 영화와 왕가위 연출·장국영 주연 '아비정전'(1990), 데이비드 린치의 '멀홀랜드 드라이브', 장선우 감독의 '우묵배미의 사랑',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 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받은 '희망의 건너편',

극장을 사랑하는 세 여인을 다룬 '시네편'이 상영된다.

22일(오후 7시 20분)에는 ACC필름엔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 소장 영화인 아다치 마사오의 '연쇄 살인마'가 무료 상영되며 30일 오후 4시부터는 뉴욕 국립도서관의 이야기를 담은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를 본 뒤 독립서점 운영자 8명과 이야기를 나눈다. 관람료 후원회원 5000원(2편 무료관람), 일반 8000원(4편 관람 시 1편 무료),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1만3000원. 문의 062-224-5858.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오방색 속 여성

임종두전 24일까지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

한국화가 임종두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건 강렬하고 자유분방한 여성이다. 붉은 색 얼굴의 그녀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한편으로 예민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는 작품 속 여성의 모습은 환상 속 인물을 만난 것처럼 관객 각자의 상상의 나래를 펴게도 만든다. 강렬한 오방색을 활용한 그의 인물화는 무엇보다 화려하고 화사하지만 한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느낌 위에 풀어놓은 터라 색감이 번지며 은은한 느낌도 받게 된다.

임종두 작가 초대전이 오는 24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방색의 인물화 작업으로 표현한 '동행(同行)', '삼합(三合)', '화화(花花)' 시리즈 등 그가 근래 작업한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보석과 돌가루 등 한국화 재료인 석채를 사용한 그의 그림은 원색적이고 강렬하며 색채 대비가 탁월한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작품 속 여성은 꽃과 나비, 새와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감을 보여준다. 또 배경으로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도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전남대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한 임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1992)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룹 새벽회, 전통과 형상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均衡(균형)

## 향수

전우회 40회 기념전 18일~23일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조규일 작 '목련과 숙녀'

지난 1974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작가들이 그룹 '전목회'를 꾸리고 이듬해 창립전을 가졌다. 1976년 '전우회'로 이름을 바꾼 회원들은 매년 고창 선운사, 통영, 변산반도, 고흥 소록도 등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 봄·여름 야의 사색회를 열고 남도문화회관 갤러리 등에서 초대전 등 회원전을 열어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초대 김충남 회장을 비롯해 박상성, 양인옥, 국용운, 조규일, 김길성 등 정쟁한 작가들이 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었다.

그들 전우회(全友會·회장 정흥기)가 18일~23일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에서 40회 기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향수'다. 40여년 걸여온 길을 되돌아보고 불과 가을 세미나 및 스케치 행사를 통해 백두에서 한라까지 풍광을 기행하며 화폭에 담았던 옛 추억들을 떠올리는 기획이다.

무엇보다 자연과 호흡하며 삶의 향기를 표현해냈던 작가들은 보성의 녹차밭, 영암 월출산, 제주 바다, 무등산, 나주 금천 배밭 등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 모란, 벚꽃, 들국화 등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과 나무를 화폭에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목련과 어우러진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내놓은 조규일 교문을 비롯해 강대성, 김길성, 김영순, 김형돈, 문춘길, 박경자, 박화자, 서봉한, 이경순, 이정주, 정미희, 정성복, 최강희, 지연선, 최성배, 하인택, 황수무 작가 등 모두 30여명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출품했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6시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